

## [ 오피니언 ]

## 월/요/광/장

민혜숙



10여년 전에 '곰팡이 꽃'이라는 소설이 화제를 끈 적이 있다. '동인문학상'을 받은 하성란의 이 소설은 밤마다 남의 쓰레기 봉지를 가져다가 관찰하는 기이한 인물을 소재로 하고 있다. 그는 남의 쓰레기를 풀어 헤치고 세심하게 기록한다. 그래서 어느 집에는 아이가 있고, 어느 집에서는 어떤 상표의 라면을 좋아하는지 파악할 정도로 이웃집에 대해 알게 된다.

물론 이같은 일방적 정보 수집이 진정한 대화가 될 수는 없다. 소설은 진정한 소통이 부재한 현대인의 삶의 양상을 그리고 있다.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또 솔직해서도 안 되는 경쟁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사회적 자아에 어울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현대의 교양 있는 사람들은 사이에서는 진정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소설에서는 어떤 사람의 진실을 알려면 예매호한 설문지를 돌리지 말고 쓰레기 통을 뛰어지는 것이 낫다고 한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쓰레기가 그 사람의 성격, 취미, 성향까지 그대로 드러내는 기호가 된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자의 쓰레기를 한번

이라도 관찰했다라면 다이어트 중인 여자에게 생크림 케이크를 선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선물한 케이크가 곰팡이를 피우며 쓰레기 속에 처박힌 모습을 보았다면 다시 케이크를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순진한 것인지 미련한 것인지, 남자는 여

자가 생크림 케이크를 좋아하는 줄 알았을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요즈음 우리 사회의 회두는 '소통'의 것 같다. 소통(疏通)은 문자 그대로 트이고 통한다는 뜻이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마치 아니하고 잘 통하고'라는 문어적 의미에서,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의 단계로 확장된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 상방의 게임 '소통'

을 뿐이다.

김형경의 소설 '민동산의 하룻밤'에서는 아내가 아침에 남편을 깨우는 장면이 있다. 지각하겠다고, 오늘따라 왜 일어나지 않느냐는 아내의 성화에 남편은 간단하게 대꾸한다. '오늘부터 휴가야.'

아내는 절망한다. 물론 남편이 늦게 일어나거나 휴가 중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아니다. 휴가계획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리 이야기하고 같이 의논 했더라면 분노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격무에 시달리는 남편이 잘 쉴 수 있도록

지도자와 구성원, 구성원과 구성원 사이에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가능할까? 사재지간, 부부간, 부모 자식 간의 소통도 원만하지 못한데 하물며 대통령과 국민이 잘 소통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대통령의 얼굴을, 표정을, 대통령이 하는 말씀을 여러 미디어를 통해 접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는 국민의 소리를 듣는 체널이 부족했던 것일까.

문제는 소통이 상방향이라는 점이다. 한 편에서 소통을 시도하더라도 다른 한 편이 막혀 있다면 진정한 의미의 소통은

이루어질 수 없다. 정도의 차이도 있다. 한 편에서는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데 다른 편에서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결국,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욕구 불만을 갖게 되고 가정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떠나게 된다. 몸이 떠날 수 없는 처지라면 마음이 떠나게 된다.

그래서 지도자에게는 구성원들이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살피는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즉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다'는 성의와 지혜가 요구된다. 그리고 구성원들은 '솔직하지만 부드럽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기술도 필요하다. 어린 학생들이 '마친 소, 너나 쳐먹어라'는 구호를 들고 나서는 것을 보자니 내용보다 그 표현에 마음이 상한다.

진정한 소통은 상방향이기 때문에 개인과 조직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경청과 친목, 이해와 관용, 진정성과 신뢰회복이 우선돼야 한다. 대통령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에 대해 사과했다. 높으신 분이 사과하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 국민 앞에 허리를 굽혔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적인 계산이나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있었다면 모두 내려놓고 나라의 앞일을 위해 솔직하고 부드럽게 대화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다.

〈소설가·호남신학대 겹임교수〉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설

## U대회 유치 실패 아쉽지만 도약 계기 삼자

광주가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유치에 실패했다. 어제 새벽 열린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총회의 개최지 결정 투표에서 러시아 카잔에 밀린 것이다. 그동안 유치단의 노력과 시민들이 보여준 높은 열기를 감안하면 교체했지만 대회 유치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안일한 대응은 국가 차원에서 전폭 지원한 러시아와 비교된다. 최근 대통령에서 물려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는 총회 직전까지 프랑스에 머물며 유럽의 스포츠 지도자를 만나 지지를 당부하는 등 직접 유치활동을 벌였다.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유럽 집행 위원들의 표심을 끌어들인 것이다.

광주시가 비록 U대회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성과도 적지 않다. 시민들이 그동안 유치를 위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고 국제사회에 광주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다. 유치활동에서 쌓은 소중한 경험을 모아 광주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지구촌 축제 가능성 보여준 '합평 엑스포'

합평군의 '2008 합평세계나비·곤충 엑스포'가 1일 막을 내렸다. 지난 4월 18일 개막해 45일 동안 진행된 합평엑스포는 생태환경을 주제로 한 차별화된 콘텐츠로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했고 환경 및 농업과 접목된 문화관광 축제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치 실패는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U대회가 이명박 정부의 첫 국제스포츠대회 유치전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었지만 5개월의 짧은 준비기간과 중앙정부의 지원 미흡, 전략 부재 등 종체적 문제점을 노출했다. 국제스포츠 무대에서 우리의 한계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합평엑스포가 명실상부한 지구촌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도 많다. 외국인 안내표지판과 주차장, 숙박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해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은 것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다. 특히 경제 파급 효과를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합평엑스포의 성공은 대부분의 지역 축제가 합평이 떨어지고 선심성 예산을 퍼붓는 전시성 축제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합평군은 이번 성공에 자만하지 말고 문제점을 꾸준히 보완하고 개선해 합평엑스포가 지구촌 최고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 無等鼓

집권 초기 정부의 인기는 치솟기 마련이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신선감에 개혁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 실체제, 공직자 재산공개 등 과감한 개혁으로 90% 넘는 지지를 받았다. 김대중 대통령도 IMF체제를 극복하면서 '준비된 대통령'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탈권위

적인 자세로 호감을 얻었다.

허니문이 정치용어로 차용된 것은 미국.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허니문 기간은 보통 3~6개월. 이 기간 동안 언론과 야당은 비판을 자제하고, 국정운영방향을 차분히

지켜보았다. 언론사는 정부 지지율 조사 자체를 하지 않고 정도로 미국에서의 허니문은 하나의 관례다. 허니문 기간이 얼마나 길어지느냐가 정부 성공의 성적표인 셈이다.

이명박 정부는 다르다. 530만 표 차이라는 대선 압승의 기세는 사라졌다. 취임 초기 70%대에 달했던 지지율은 최근 40%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최근 열린 쇠고기 대책회의에서 "1만명의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보고하라"며 화를 냈다고 한다. 촛불에 담긴 국민들의 주장을 이리 모를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정부는 기업이 아니다.

/오주승 사회1부장 jsoh@kwangju.co.kr

## 재판은 설득과 화해

우리나라 민법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옛날, 시골의 한 선비가 서울에서 거울을 사 가지고 왔는데 너무 신기해 남몰래 장롱 속에 감추어 두고 혼자만 꺼내서 보았다. 순간 깜짝 놀랐다. 깊은 여자의 모습이 불쑥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질투심이 머리끝까지 치민 아내는 시어머니에게 쫓아가서 남편이 깊은 청을 얻어다 물려 장롱 속에 감추어 두었다고 하소연했다.

때 그 누구라도 당사자들에게 거울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틀렸다고 고만 하면 그들은 절대 승복하지 않는다. 재판도 마찬가지다. 재판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해야 한다고 한다. 당사자가 하나의 관점에 사로잡혀 자신만이 깊다고 주장할 때 판사는 지혜로운 협상을 되도록 이해하는 열린 마음과 전제를 바라보는 혜안을 가지고 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쓰레기가 그 사람의 성격, 취미, 성향까지 그대로 드러내는 기호가 된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자의 쓰레기를 한번

모두가 함께 거울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당사자들은 비로소 판결과 오해에서 벗어나 실제적 진실에 다가가고 분쟁은 화해로 나가게 된다.

우리는 20세기 초 일제에 의해 36년 동안 나라 깊은 설움을 겪어야 했으며, 그 아픔이 체가시기로 전에 같은 민족끼리 동족상잔의 비극과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한 아픔을 딛고 반세기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어온 것이다.

이 이야기는 그냥 스쳐가는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재판을 하면서 간혹 자기 모습에만 사로잡힌 '현대판 거울'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난다. 그들은 자신의 주장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는다. 그리고 남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억울해 한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만을 보고 말하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분쟁은 이렇듯 자신만이옳고 상대방이 다르다고 생각할 때 시작된다. 이럴

것이 법원에서 시행하는 구술심리의 요체이고, 판결보다 조정 화해를 강조하는 이유다.

법률문화가 정착된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경우를 보더라도 판결 비중이 10% 미만이고 주로 조정 화해로 분쟁이 종결된다고 한다.

조정 화해는 실제적 진실에 보다 더다가 모두가 승복하는 장점 외에도 최종 판결까지 가는데 걸리는 소송비용과 시간·정신적 고통·그리고 또 다른 분쟁을 조기에 예방하는 미래의 가치까지 가지고 있어 당사자가 화해를 위해 어지간히 양보하더라도 판결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은 국민 모두가 잘살아 보겠다는 강한 의지로 끊임없이 노력한 덕도 있지만, 우리의 선혈들이 항일투쟁에서 6·25전쟁, 5·18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갖은 탄압과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굽하지 않고

## 기고

## 강민원



신뢰로 푸르름을 더해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의미와 파장을 던져 주었던 가정의 달 5월이 가고, 6월 호국보훈의 달이 왔다. 지난 5월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계절이었다면 6월은 그 사랑의 범위를 국가와 민족으로 넓혀 생각하는 달이기도 하다.

우리는 20세기 초 일제에 의해 36년 동안 나라 깊은 설움을 겪어야 했으며, 그 아픔이 체가시기로 전에 같은 민족끼리 동족상잔의 비극과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한 아픔을 딛고 반세기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어온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은 국민 모두가 잘살아 보겠다는 강한 의지로 끊임없이 노력한 덕도 있지만, 우리의 선혈들이 항일투쟁에서 6·25전쟁, 5·18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갖은 탄압과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굽하지 않고

## '유고 노이로제' 어린이 상대 교회선교 말아야

일요일 아침 일찍 웬 남자로부터 우리 아 이를 찾는 전화를 걸려왔다. 요즘 유고와 남 치가 많은 세상이 겁을 덜컥 냈다. '누군가 우리 아이를 찾나'고 물었더니 교회 주일 교사였다. 그래서 아이를 교회에 보낼 생각은 없나니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가르쳐야 한다.

교회를 가고 안가는 나중의 일이고, 다른 쉬는 일요일 아침부터 남의 집에 불쑥 전화를 걸어 교회 얘기 하는 건 실례 아니라고 한마디 했다. 그리고는 우리집 전화를 어떻 게 알았나니 물었더니 아이가 가르쳐줬다고 한다.

전화를 끊은 뒤 "왜 아무에게나 전화번호를 알려주나?"고 꾸중을 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교회는 좋은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이 말이 틀리건 아니었지만 고민이 생겼다. 아이들이 이렇게 철썩같이 믿는 것을 이

용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교회가 나쁜 곳은 아니지만 종교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모르는 아이들에게 무작정 교회에 나오도록 강요하는 것은 옳지 못한

특히 요즘 유고 납치 사건이 위나 많이 일어나 아이들에게는 낯선 사람들은 무조건 피하라고 가르키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에게 무작정 다가가 교회에 나오라고 한다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보고 아이들이 얼마나 갑작스럽고 겁나겠는가.

건전하고 조용한 종교적 선교활동은 굳이 문제삼고 싶지 않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이같은 무작정적 선교활동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박미진·목포시 서산동

## 음식량 모자라 낭패...출장뷔페 음식 표준안 만들었으면

돌잔치나 결혼 피로연, 집들이 행사 등에서 출장뷔페 이용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음식량이 모자라 큰 낭패를 보는 경우를 자주 본다. 며칠 전 친지의 돌잔치에서도 똑같은 사례를 보았다.

잔치에는 친척, 회사 동료 등 축하객들이 많았다. 음식은 출장뷔페를 이용, 50인분을 주문했다. 문제는 음식이 금새 떨어져 늦게 온 축하객 10명 정도는 아무 것도 먹지 못하게 됐다. 당황한 주최측은 급히 근처 중국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이것저것 추가로 시켰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출장뷔페 회사에게 있는 것 같았다. "어떻게 50인분을 시켰는데 음식이 이것 밖에 안되나"며 회사측에 항의하는 것이었다. 실제 돌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43명이었고 음식은 50인분이었는데 음식이 부족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출장뷔페의 단순한 실수로 넘길 일이 아니다. 이에 소비자보호 규정을 뛰어 표준 음식 단과 무게, 가격 등을 산정한 '인원별 출장 뷔페 음식 표준안'을 제정했으면 한다.

▲유지영·목포시 수강동

##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榮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자·국제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내 FAX 222-4918	사회 2 부 2200-619	경영 2 부 2200-511 문화 흥 보 국 2200-541
면 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F A X 222-8005>
정 치 부 2200-616	문화생활부 2200-628	광고마케팅국 2200-521
경 제 부 2200-617	체 유통 2200-627</	